

여덟번째 이야기

[2019 선교사 사역현장]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흐드러지게 핀 꽃이 비가 되어 휘날리고 세상이 온통 춘향(春香)으로 가득했던 4월의 어느 날, 지난 16년간 언제나 다정하게 함께 다니시면서 선교사의 삶을 사시고, 이제는 마무리하며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소망하시는 두 분의 멋진 선교사님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BEE : 선교사님의 신앙의 시작은 어떠하셨나요?

고종영 : 저는 3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는 개항 후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전도사가 되신 외할머니를 따라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아이들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등의 보혈찬송을 부르면서 놀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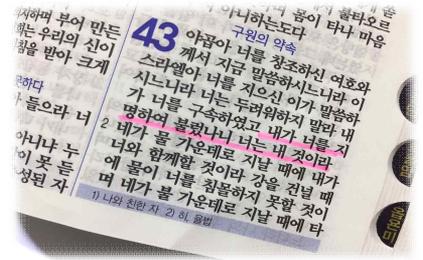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세상과 교회, 양쪽에 한 발씩 담그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도 신나게 지내다 보니 어느 쪽에서도 기쁨이 없는 생활이었지요.

BEE : 그럼, 선교사에 대한 부르심은 언제 받으셨는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요?

고종영 : 네비게이트 성경공부 단체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동안의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30대는 말씀과 영혼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대학생들을 전도하며 말씀과 삶을 나누는 시기였습니다. 40세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었지만 교회 안의 사역보다는 교회 밖에서의 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 시기에 브라질, 러시아 등 단기선교를 가면서 언젠가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은 46살 때 두 번째 러시아 선교 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2주간의 러시아 사역을 돌아볼 때였습니다. '지금 당장 네가 할 수 있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이 아니라 항상 사역을 함께 다니는 아내에게도 똑같은 음성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셨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43:1)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경진 : 각자 다른 자리에 앉아 있던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린 후 서로 하나님의 주신 맘을 나누었어요. 우리 부부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신학을 시작하고 다니던 직장에 러시아 파견을 신청하고 하나씩 주변을 정리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97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던 러시아가 아닌 사우디로 인도하셔서 98년 4월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선교사로서의 첫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BEE : 어떠한 계기로 BEE 사역을 시작하셨나요?

고종영 : 이슬람권인 사우디에서 지하교회에서 말씀사역을 하던 중 99년에 BEE에서 사역하려 오셨던 조문상 선교사를 만나 BEE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목사, 조문상 선교사가 인도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BEE가 사우디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사역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자유가 없고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의 특수한 상황에서 BEE 사역은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훈련 사역이었습니다. 그 후 BEE 사역 제안을 받고 2005년에 BEE 허입선교사가 되었습니다.

BEE : 선교지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고종영 : 사우디는 당시 20~30명 모이는 작은 교회가 2,000개 정도가 있었으나 교회 리더가 훈련받을 기회는 없었어요. BEE 말씀사역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선교의 꿈을 키워가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했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이 이슬람에서 이야기 하는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참 진리이고 구원자임을 깨닫고 각자 귀국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조경진 : 때로는 힘들도 많았지요. 4-5 시간씩 운전하여 다른 도시에 가서 세미나 3개를 하고 돌아오면서 서로 깨우지만 순간적으로 동시에 졸다가 위험했던 때, 성경책 공급해주려 갖고 오다가 경찰검문소에서 들킬 뻔했을 때, 담맘(사우디 동부 샤희키야주의 주도)에 있던 아파트를 우리가 없는 사이에 사우디 사람에게 빼앗겼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심장마비로 길에서 쓰러졌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BEE : 한국에서도 선교사님 상황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인도와 치료하심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떠하였는지요?



고종영 : 그날은 다음날 다른 지역 사역을 위해 리야드를 지나 16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가야 했어요. 세미나를 끝나고 쉬는데 새벽 1시경에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묵고 있었던 목사님을 깨워야하나 고민하다가 참고 있었고, 2시간 정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막으로 들어가기 전 도시의 끝자락에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으나 구급차가 안 와서 때마침 목사님 사모가 차를 가지고 와서 사모가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응급 처리를 했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안 먹는 아침을 그날은 먹고 조금 늦게 출발하였기에 사막 입구까지만 가게 되었고, 때마침 목사님 사모가 근무하는 병원에 갈 수 있어서 살 수 있었지요. 40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 하였지요. 정말 하나님의 섬세하게 상황을 인도하셨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BEE : 때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랜 선교사역 중에 중심이 되었던 말씀은 무엇인가요?

고종영 : 사역초기에는 이사야서에서 주시는 회복의 말씀들을 통해 사우디 사막을 복음으로 회복시키시어 길과 강을 내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한 말씀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는 오로지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뿐이지요!



BEE : BEE의 초기 선교사로서 후배 선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고종영 :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선교사의 역할도 조금씩 다르고 또한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이 같다고 같은 방법으로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다양한 방법을 구하며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해요. 선교지에 오래 있기보다는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고 현지 교회가 자생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사역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세우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EE는 그런 면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교회와 더불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때론 단기 선교팀의 경우 선교지에 와서 자신만의 사역을 하다 보니 서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후원체제가 변화가 되어야합니다. 지역 후원이 아닌 선교사 개인의 후원으로 해서 선교사가 어디를 가든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BEE : 올해 BEE는 '말씀을 행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선교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종영 : 선교사에게 이웃이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열심히 사역을 하다보면 그들이 섬김과 동역의 대상이 아닌 사역의 대상으로만 보이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를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오직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잘하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또한 Facilitator로서 내가 세미나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대로 살고 있는가는 매순간 점검하며 살아야합니다.

BEE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요?

조경진 :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 준석이는 결혼하여 두 아들(노아, 에스라)과 5월 말에 태어날 딸이 있고, 둘째 아들 창석이는 아직 미혼으로 서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처음 선교지로 나갈 때 둘째가 고3이어서 정말 부모의 돌봄이 필요로 하는 시기였으나 부모와 떨어져 사는 동안 아이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종영 : 처음에는 우리보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중요하냐고 하던 아이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일하심을 보면서 좋은 후원자이자 중보자가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 부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이지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것으로 묶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BEE : 올해 BBK 때에 은퇴하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요?

고종영 : 은퇴 중에 제일 맛있는 은퇴는 세례 요한의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은퇴는 못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doing) 어떠한 사람이 되는데(being) 더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가장 편한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이제 선교사의 삶이 아니라 선교사적 삶을 교회 안에서 성도와 함께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이 그러했듯이 단순하고 가벼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BEE : 선교사님에게 BEE와 선교란 무엇일까요?

고종영 : 저에게 BEE란 ‘선교사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 BEE가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란 ‘예수님 외판업’이지요. 본사에서 멀리 파송돼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팔아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어디에서나 우리 부부는 ‘예수님의 외판업’을 잘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BEE의 첫 은퇴 선교사가 되시는 고종영 선교사님과 조경진 선교사님. 삶이 연륜으로 채색된 흰머리가 더욱 아름다운 두 분은 인터뷰 내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셨습니다. 16년 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을 받게 하심을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두 분의 모습 속에서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을 향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25:21a)”**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인터뷰, 글 : 김옥숙 ‘BEE수’팀장]

BEE의 보석 찾기

08. 강병섭 집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2006년 동생 부부의 권유와 아내의 무모한 결단을 통해 BEE를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독려하고 도우면서 스스로 하는 세미나 성경공부는 굉장히 신선했으며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며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삶에 대해 깨닫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사회관계에 대해 모든 변화가 이루어졌고 꿈만 꾸던 것을 자신 있게 실천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BEE는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어주는 원천이며 이는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참 잘살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 문입니다.

부천 온누리 교회 화평공동체에서 순장을 섬기고 있으며, 사랑하는 아내와 자영업과 농사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이 확실한 27세의 딸이 있습니다.

09. BEE 보석을 찾아요~

* 다음 주 보석 찾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개척교회를 섬기며 BEE를 통해 한국과 모든 나라의 차세대 젊은이들을 세우기를 기대하고 있는 보석같은 집사님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기대하는 이 분은 바로.....!!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는 4월! '화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는 영혼의 평온한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주간 되세요.
2. 4월 27일(토) 아침 9시, 세 대의 버스가 120여명의 온비아 학생을 태우고 강화 '교산교회'로 출발합니다. 2019 온비아 수련회! 온비아 학생들 모두가 10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 6월 16일(일)-21일(금)의 '몽골 DPM 졸업식 및 FTS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중보 기도로, 사역 참여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